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

문화비축기지
2021.05.12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이자 재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중 가장 아름다운 5월입니다. 보고 느끼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녹색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고단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결국 극복할 것입니다.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고 치료제도 개발되면,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이자 재앙입니다. 태풍 산불 이상고온 같은 기후재앙 앞에 선 선진국도 없고, 후진국도 없으며 인종, 종교, 계층도 없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실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원년으로,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취임 첫 날 파리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목표를 천명했으며, 이달 말에는 '녹색성장과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즉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한국포럼>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한국일보도 금년도 포럼주제를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국내외 석학과 정책 책임자, 환경운동 실천자들이 대담과 강연, 토론에 참여해 기후변화 심각성과 현실적 솔루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주제에 맞춰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야외무대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건설한 석유비축기지로, 현재는 친환경 시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시대를 대표했던 장소에서,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대표 중도정론지 한국일보를 향한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2021 한국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사 사장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

THE FUTURE OF THE EARTH, THE FUTURE OF KOREA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 09:00~13:30

장 소 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증산로 87)





홈페이지 <http://www.thekoreaforum.com>

문의 한국포럼 사무국 02)522-4738

시청방법 유튜브 한국일보채널

(www.youtube.com/user/thehankookilbo)

주 최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후 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TIME	CONTENTS	
09:00~09:20	환영사 / 축사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박병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09:20~09:40	기 조 강 연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보다는은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09:40~10:20	대 답	탄소제로, 라쉬가 묻고 한 장관이 답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타일러 라쉬 방송인,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10:20~11:00		삭스 교수에게 듣는다, 지속가능한 지구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1:00~11:20	강 연	숲이 지구를 살린다 신원섭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전 산림청장
11:20~11:40		제로에너지도시를 향하여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11:40~12:00		살아 숨 쉬는 지구를 위한 실천 시우테즈칼 마르티네즈 래퍼 겸 환경운동가
12:00~13:30	패 널 토 론	탈탄소 시대, 우리의 선택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협 사회 제주연구원장, 전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문화 비축기지

석유에서 문화로 Oil to Culture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매봉산에 에워싸인 '문화비축기지'는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됐던 산업화시대 유산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된 문화공원입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76~78년에 5개 탱크를 건설해 당시 서울시민이 한 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인 6,907만 리터의 석유를 보관했던 마포석유비축기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는데, 10년 넘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2013년 시민아이디어공모를 통해 문화비

축기지로의 변신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석유를 보관하던 탱크들은 석유 대신 매일 색다른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탱크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5개의 탱크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해체된 탱크의 철판을 활용해 만들어진 T6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비어있던 야외 공간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 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지에 남아있던 수림은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매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서는 종종 산토끼와 청설모도 만



날 수 있습니다. 석유와 건설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던 공간이 친환경과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전시, 공연, 워크숍 등 색다른 문화 행사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열립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협치시민, 협력시민, 활동시민으로서 생태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문화비축기지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 생산의 공간이자 전환 도시의 거점으로서 이곳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6 ~18층
한국포럼 사무국 02)522-4738 한국일보 지식콘텐츠부 02)724-2664

※ 본 리플렛은 친환경 크라프트지로 제작되었습니다.